

‘총체적 선교’ 관점에서 본 국내 기독교 NGO의 지역개발사업 평가와 발전방안 제시 - 한국월드비전과 한국기아대책을 중심으로 -

김성민*

논문초록

전통적 방식의 선교사역이 여러 가지 한계를 보이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NGO선교 혹은 기독교 NGO사역이 그 대안 중 하나로 부상하게 되었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한국기아대책, 한국월드비전 등의 기독교 NGO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지역개발사업/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기독교 NGO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선교적 NGO 사업/사업의 성격과 지향에 대해 성경과 선교학은 원리를 제시해야 하는데, 필자는 그 원리가 ‘총체적 복음’에서 출발하는 ‘총체적 선교’라고 본다. 따라서 기독교 NGO가 실시하는 해외지역개발사업 역시 성경과 기독교 가치에 근간한 ‘총체적 지역개발’이어야 한다. 그리고 복음적이고 기독교적인 ‘총체적 지역개발’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 특성은 ‘변혁성’, ‘총체성’, ‘통합성’이라고 필자는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NGO인 한국월드비전과 한국기아대책의 해외지역개발사업을 위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보고, 그 평가결과 영적부분의 보완, 문화적 학습의 해소, 현지인 리더십 개발 및 지도자 교육훈련의 강화 등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과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제언해보았다. 향후 국내 기독교 NGO의 총체적 지역개발 사업이 추구해야 할 구체적이고 상세한 전략방안의 모색작업은 후속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주제어 : 총체적 선교, 총체적 지역개발, 기독교적 지역개발사업, 기독교 NGO, 한국월드비전, 한국기아대책

*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초빙교수

2016년 12월 30일 접수, 2017년 3월 12일 최종수정, 3월 13일 게재확정

I. 머리말

1. 문제의 제기

세계화 시대 특징 중 하나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각 방면의 전통적인 행위자였던 국가 혹은 정부 등 공공부문의 역할과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비정부기구, 즉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로 대표되는 민간부문의 그것이 대폭적으로 확대되고 활성화된 것을 꼽을 수 있다. 그렇기에 요즘 시대를 가히 ‘NGO의 시대’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들 NGO는 각국의 정부를 대신하여 빈곤감소, 에이즈 예방 및 퇴치, 문맹감소, 난민보호, 환경보호, 전쟁 방지, 인권향상, 재난복구 등 수많은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 여러 현안과 문제의 해결에 있어 기존 국가 및 정부의 역량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선교사역의 방면에서도 이와 비슷한 추세와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선교사역을 담지하던 전통적 주체였던 교회와 선교단체의 역할과 영향력이 여러 방면에서 한계를 보이게 되면서, 기독교NGO에 의한 해외 사업장에서의 지역개발사업이 새로운 대안적 선교사역으로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기독교NGO의 개발사업을 활용한 선교사역은 국내외적으로 1990년대 이후 매우 활발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대형교회들을 중심으로 자체 NGO를 설립하는 등 NGO 선교사역에 대한 기대가 한국교회 내에서 크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에서 구호 및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NGO들의 협의체 기구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구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에는 대략 140여 개 단체들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기독교 배경을 가진 기독교NGO는 40-5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GO가 21세기 새로운 선교적 주체로 떠오르고 그들의 지역개발사업이 21세기 선교사역의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수행되고 있는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서 국내 기독교NGO들의 지역개발사업의 개념과 역할 및 의의에 대해 성경적 그리고 선교학적 시각에서 고찰해보고, 현재의 사업상황에 대해 평가해본 후, 보완점과 발전방향을 고민해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40여 개가 넘는 기독교 기반의 NGO들 가운데 대표적 단체인 한국 월드비전과 한국기아대책기구의 지역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 기독교 NGO들은 사업규모, 조직구성, 조직운영의 메커니즘 등에서는 비록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사업목표와 비전, 사업전략과 원리, 사업내용에 있어서의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기에, 국내 기독교 NGO의 전반적인 해외사업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 성경적 및 선교학적으로- 평가하고 지향성을 모색하며 발전방향을 강구하는데 있어 두 단체의 사례만 살펴봐도 충분한 대표성을 가지리라 생각된다.

2.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

본고에서 필자가 언급하고 다루게 될 논의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본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교학적 측면에서의 통전적-총체적 선교 혹은 지역사회개발 사역의 평가. 둘째, 기독교적 지역사회개발 사업/사역의 사례. 셋째, 기독교 선교에서 NGO 사역의 가치/의의와 역할. 넷째, 국내 기독교 기반 NGO의 사업에 관한 고찰 및 평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주제들과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선교신학적 측면에서의 지역사회개발 사역의 평가에 대해서는 장성진과 최무열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장성진(2009:13-15)은 지난 세계선교의 역사 속에서의 총체적/통전적 선교 사역의 시작, 총체적 선교의 성경적 근거와 개념 및 필요성 등에 대해 언급한 후 상황화적 모델에 근거한 지역사회개발의 선교학적 가치와 유용성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토착화 모델과 사회경제적 모델로 구성된 초기의 상황화 모델이 스테판 베반스에 이르러 번역 모델-적응 모델-실천 모델-인류학적 모델-초월적 모델의 다섯 가지로 구체화 되었는데, 지역사회개발 사역을 상황화 모델에 근거하여 살펴본다면, 성경본문과 기독교 전통 그리고 문화에 대한 해석에 근거하여 도출된 현대선교의 상황화에 적합한 선교전략이자 선교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별히 지역사회개발 사역은 인도 등 다종다양한 종교문화로 구성된 지역과 상황에서 효과적인 선교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최무열(2010:105-117)은 복음주의적 및 에큐메니컬적 두 선교관의 유형에 대해 지적하면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발견되는 통전적 선교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에서서 선교방안

에 대해 제안하고 있는데,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공산권에서 교회의 사회사업을 통한 사회복지적 통전 선교의 필요성과 사역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기독교적 지역사회개발 사업/사역의 사례에 있어서는 김덕규, 장남혁, 장성진 등의 연구가 있다. 베트남에서 선교사이자 NGO 활동가로 사역하고 있는 김덕규(2015:111-116, 124-133, 133-136)는 지역사회개발 선교의 신학적 근거를 디아코니아에서 찾으면서 베트남 빈롱성 지역에서의 사랑의 집 짓기 사업, 소액대출 사업, (빈롱성과 일본 야마구치현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농업분야의 협력, 경제투자의 유치, 베트남 학생의 일본 유학 지원 등 지역사회개발 사역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개발 사역과 선교와의 관계성에 대해 고민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NGO 사역의 실제적 효용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해주고 있다. 장남혁(2013:117-124, 124-136)은 로잔 운동의 통전적-총체적 선교 논의에 대해 고찰한 이후 통전적-총체적 선교 개념의 구체적인 발현으로서의 지역사회개발 사역의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브룬디, 르완다, 케냐 등 아프리카 각 지역에서 수행되고 있는 ‘총체적 건강마을 프로그램(Total Health Village Program)’과 ‘삶을 위한 저축 프로그램’, 그리고 필리핀 마닐라 지역의 교회개척을 통한 도시빈민 개발사역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 언급하고 나서 보다 더 효과적인 지역사회개발 선교를 위한 다양한 차원과 방식의 파트너십 형성에 대해 촉구하고 있다. 장성진(2009:4-12)은 인도 남부 지역에서 수행되고 있는 CRHP(The Comprehensive Rural Health Project)와 CRHSE(Center for Rural Health and Social Education)의 사역내용과 방식 및 특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보건의료 사업, 교육사업 및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 소득증진 사업, 통합적 지역개발 사업 등을 실시해온 이 기독교NGO들의 사역의 결과, 지역주민의 20퍼센트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된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셋째, 기독교 선교에서 NGO 사역의 가치와 역할 중요성에 관해서는 김성민과 황선엽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성민(2016:243-25, 256-261, 261-275)은 자신의 논문에서 먼저 NGO 활동사역의 기독교적 기원과 연관성을 구약과 신약의 복음서에서 추출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 후 최근 선교 패러다임의 변화 추세 속에서 기존 선교 접촉점의 한계를 증대시키고 새로운 선교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NGO의 유용성과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NGO를 통한 새로운 선교방향의 모색을 전

인적 구원을 위한 NGO 선교, -선교 대상자의- 세계관의 변화를 위한 NGO 선교, 사회 통합을 위한 NGO 선교의 세 가지 관점과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 황선엽(2007:14-17)은 2004년 동남아 일대의 쓰나미 사태 당시 영국의 교회, 기독교계 민간자선단체/NGO, 시민사회가 한 마음이 되어 신속하게 성금을 모집하고 구호지원단을 구성·파견하여 긴급구호 사업을 수행했던 사례를 들면서 기독교 선교사역에 있어 NGO 및 기독교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비록 점차 쇠락해가는 영국교회이지만 영국 기독교 선교사역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십수 만의 역량 있는 기독교 계열의 NGO들임을 강조하면서, NGO의 긴급구호 사업,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인권보호 사업, 탈북자 보호 사업, 질병퇴치 사업, 교육사업 등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 대부분 기독교를 거부하거나 기독교 문화와 충돌을 빚는 곳이라는 점에서 교회와 기독교 기반 NGO 간의 협력이 요구됨을 지적하고 있다. 특별히 점차 복잡화, 세분화, 다양화 및 전문화된 사역을 필요로 하게 된 작금의 선교현장은 교회와 NGO 간의 파트너십 형성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넷째, 국내의 기독교 기반 NGO에 대한 소개와 평가에 있어서는 김원곤, 조귀삼 등의 연구가 있다. 조귀삼(2013:194-195)은 국내 기독교 NGO에 대해 평가하는 부분에서 후원재정 관리에서의 투명성 부족, 기관규모와 예산의 영세성, 기독교 종사자들의 전문성의 부족 등을 꼽고 있다. 김원곤(2011:43-44)은 그의 논문의 말미에서 전문성과 투명성의 획득, 단체경영과 사업에서의 효율성의 제고, 후원자 모집과 후원금 모금 기법의 개발, 현지 상황에 맞는 전문적 사업 프로그램의 구축, 현지에서 비기독교 일반 NGO 및 여타 기독교 단체들과의 연대와 협력의 강화 등 기독교 NGO들의 향후 과제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한편 조귀삼은 같은 논문에서 기아대책, 굿피플 등의 활동과 사업에 대해 소개 및 설명하고 있는데, 기아대책의 경우 해당 단체의 전반에 관한 개괄적이고 간략한 소개를, 굿피플의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다문화 사역과 탈북자 및 북한선교 사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기존 선행연구들은 각각 고유한 연구가치와 의의를 지니고 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약점과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필자가 지적하는 선행연구들의 아래 두 가지 약점과 한계는 곧 본 논문의 장점이자 기존 논문들과의 차별성이라 말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관련 논문들은 총체적/통전적 선교와 연관된 지역사회개발 사역의 내

용과 사례에 대해 소개·설명·평가할 때에, ‘개발’의 이론적, 특별히 사회과학적 개념에 대해 논구하지 않는 약점을 보이고 있다. 지역사회개발 사역의 중심은 무엇보다도 ‘개발’이다. 그런데 ‘개발’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지 않고 ‘개발’의 이론적 개념과 정의에 대해 논구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총체적 선교 개념에서 곧바로 지역사회개발 사역으로 건너뛰어 개발사역을 설명하고 평가하는 것은 논지 전개와 논리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역사회개발 사역에 대한 유의미하고 정확한 평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를 환언하면, 기존 연구성과들은 ‘(성경과 복음에 입각한) 총체적 기독교 지역개발’의 이론적 개념과 내용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규정하는 데 필요한 논리적 중간 연결고리를 결여하고 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둘째, 기존 논문들은 총체적/통전적 선교 개념에 입각하여 수행되는 기독교적 지역개발 사업/사역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 원리와 특성을 추출해내지 않고 있다. 이 핵심적 원리와 특성이 바로 기독교 NGO의 해외지역개발 사업/사역을 평가하는 성경적 및 선교적 기준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기존 연구들은 국내 기독교 NGO들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 제언에 있어서도 일반적 NGO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의 기준인 재정의 투명성, 조직운영의 효율성, 사업의 전문성 등을 지적하는 데 그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선행연구에 대한 위와 같은 분석과 판단에 기초하여 본고는 다음과 같은 차별화된 논의전개와 연구방식을 갖추고자 한다. 첫째, 필자는 사회과학 및 국제개발론 등에 근간하여 ‘개발’ 그리고 ‘지역개발’에 대한 개념규정을 시도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개발’의 반대개념이자 ‘저개발/저발전’의 동의개념인 ‘빈곤’에 대해 사회과학적으로 논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논지전개 및 연구방식을 통해 본 논문은, 총체적 선교의 개념→빈곤, 개발, 지역개발의 개념 및 선교와의 연관성→총체적 기독교 지역개발의 개념으로 이어지는 논리적 흐름의 정합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필자는 위의 논리적 연구방식을 통해 총체적 선교 개념에 입각한 총체적 기독교 지역개발 사업/사역의 세 가지 핵심적 원리와 특성을 추출하고자 한다. 이로써 기독교 NGO들이 수행하는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 보다 유의미한 성경적 및 선교학적 평가와 발전방향의 제언이 가능해질 것이다.

II. ‘총체적 선교’와 ‘총체적 지역개발’의 이론적 개념

1. ‘총체적 선교’의 개념

세상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평화, 정의, 화해, 치유, 회복, 소망 등으로 나타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죄와 죽음, 질병과 가난, 억압과 착취, 부정과 부패, 불평등과 사회적 모순, 절망과 두려움이 사라질 것을 선언한다(Winter 외, 2000:173). 그리고 복음은 개인과 공동체, 사회, 국가,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을 지향한다. 이렇게 복음은 그 목적과 기능, 그리고 지향에 있어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이며 총체적이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의 총체성’, 혹은 ‘총체적 복음’이라 부른다.

복음이 총체성을 내포하고 있듯이 이런 총체적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선교사역 역시 그 방식과 내용에 있어 총체성을 지녀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포괄적 비전으로 나타나기에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개인이나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기독교 선교사역은 복음전파와 사회적 활동을 포함한 포괄적 행위이어야 하며, 인간 개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를 변화시켜 영적, 물질적, 사회적 관계와 영역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지향하고 추구해야 한다(마민호, 2005:9-11).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총체적 선교(holistic mission)’라고 정의한다.

총체적 선교는 인간 개개인을 육체, 정신, 영혼을 지닌 전인적 존재로 파악하는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 사역이기에 인간의 회심과 영혼구원, 기독교로의 개종만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의 정서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물질적, 육신적 고통과 문제를 해소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예수님의 사역 역시 인간의 필요를 총체적으로 채우는 것이었다(마 9:35). 복음을 선포하고 적용하는 것은 인간 개개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인간이 살고 있는 시공간의 변화, 즉 구조와 상황의 변혁까지 포함해야 한다.

2. ‘개발’/‘지역개발’의 개념 및 선교와의 연관성

‘개발’ 및 ‘지역개발’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빈곤’에 대한 개념이해가 선행되

어야 한다. 빈곤상황이 먼저 존재하기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행위와 과정으로서의 개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빈곤과 개발에 대한 개념정의는 학자/연구자 개인에 따라 그리고 기관단체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기에 모든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다. 그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광범하게 이해되고 사용되는 개념정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빈곤의 개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빈곤’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 이는 주로 빈곤의 협의적 개념에 주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빈곤을 좁은 개념으로 축소시킨다면 물질적 혹은 경제적 측면의 접근만을 가리키게 되는데, 이 때 빈곤(貧困)이라는 용어는 한자어 그대로 물질적 가난 혹은 경제적 궁핍을 의미하게 된다.

빈곤에 대한 이러한 협의적 개념접근은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져왔다. 국민총생산, 1인당 국민소득, 1인당 열량 섭취량 등이 특정국가와 해당 주민의 빈곤을 가늠하는 전통적이고도 표준적인 지표였고, 이에 따라 빈곤감소 혹은 빈곤완화를 위한 노력 역시 물질적이고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되었다.

그런데 시대를 거치면서 학문적으로나 혹은 실천적으로나 이런 빈곤인식에 대한 조정과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보다 광범하고 본질적으로 빈곤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오늘날 빈곤문제를 다루는 학자와 활동가 사이에서 통용되는 빈곤은 주로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빈곤에 대한 광의적 개념은 가장 단순하게는 ‘사람의 여러 가지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결핍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로부터 단절된 상태. 혹은 필요한 요소에의 접근이 제한된 상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빈곤에 대한 보다 광범하며 심화된 개념규정을 시도하는 기관으로 우리는 일본개발교육협회를 꼽을 수 있다. 협회는 빈곤을 ‘힘(혹은 역량)의 박탈’모델을 이용하여 설명하는데, 빈곤이란 힘이 박탈된 상태, 즉 돈, 교육과 고용, 정보와 고립, 시간과 공간의 결핍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일본개발교육협회, 2012:85). 돈, 교육, 고용, 정보 등 요소들의 부족으로 인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박탈당한 상태가 바로

‘빈곤’이라는 해석이다.

국제개발원조를 선도하는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역시 빈곤에 대해 광범하고 본질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들은 2001년 4월에 열린 DAC 고위급 회의에서 채택된 ‘DAC 빈곤감소 가이드라인 (DAC Guidelines on Poverty Reduction)’에서 빈곤을 다섯 가지 능력, 즉 경제적 능력 (economic capability), 인간적 능력(human capability), 정치적 능력(political capability), 사회문화적 능력(socio-cultural capability), 보호능력(protective capability)이 결핍된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KOICA ODA 교육원, 2016:498-499).

(2) 개발 및 지역개발의 개념

빈곤에 대한 개념이 이상과 같다면 개발의 개념도 이것에 연동되게 된다. 왜냐하면 개발이란 빈곤상태 혹은 빈곤상황을 해소하고 타파하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학 및 국제개발학 분야에서 ‘개발’이란 통상적으로 ‘박탈된 힘(역량)을 획득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를 환언하면 ‘역량강화(empowerment 혹은 empowering)’라는 용어로 표현된다. 이를 토대로 경제적, 인간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보호적 능력의 결핍상태로 빈곤을 해석하는 OECD DAC는 빈곤지역의 빈곤주민들이 결핍된 다섯 가지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행위 혹은 과정을 ‘개발’이라고 정의한다.

우리가 이렇게 빈곤과 개발에 대한 개념을 규정한다면 ‘지역개발’은 이러한 개발 개념을 지역 내에서 파악하고 적용하는 것이 된다. 즉, 특정지역의 빈곤상황을 해소하는 것, 특정지역 내 주민들이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요소와 자원들에 접근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의 결핍을 해소하고 그것들을 획득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지역개발의 개념이 된다.

(3) 지역개발과 선교와의 연관성

선교를 전도행위라는 좁은 틀로 이해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이고 광범한 의미, 즉 총체적 성격의 것으로 파악할 때 지역개발과 선교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하겠다.

일본의 어떤 교사가 65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전 세계를 100명이 살고 있는 마

을로 가정한 후 다음과 같이 지구마을의 상황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다(KOICA ODA 교육원, 2012:13).

100명 중 12명은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지닌 장애인이다.
100명 중 14명은 기아와 만성영양실조 상태에 있다.
100명 중 43명은 기본적인 위생환경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채 살고 있다.
100명 중 18명은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오염된 물을 마시며 살고 있다.
단 20명만이 마을 전체 부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80명이 부의 10%를 나누어 가지고 있다.
단 20명이 마을 전체 에너지의 80%를 소비하고 있고, 나머지 80명이 남은 20%를 나누어 쓰고 있다.
100명 중 21명이 하루 1.25 달러 이하의 생활비로 살고 있다.
100명 중 단 1명만이 대학교육을 받았다.
100명 중 15명은 문맹이다.
만약 당신이 음식을 보관할 냉장고를 가지고 있고, 옷을 보관할 옷장을 가지고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침대를 가지고 있고, 당신의 집에 지붕이 있다면 당신은 100명 중 상위 25명 안에 드는 부자이다.
100명 중 40명은 각종 정치사회적, 사회경제적 억압과 착취, 감금과 폭력, 인권침해와 차별 속에 살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세계 인구의 80-90% 가량이 육체적, 물질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필요로부터 단절된 ‘빈곤상태’에 처해 있으며, 이들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통상적인 기독교 선교 대상지인 제3세계 지역과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 제3세계 중에서도 선교계가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10/40창 지역은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이 밀집된 지역, 즉 영적필요가 많은 지역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육체적, 물질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필요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즉 영적결핍은 통상적으로 심리·정서적, 육체적, 물질적, 정치적, 사회적 결핍과 긴밀히 결합되어 있으며, 바로 이 지점에서 지역개발과 선교는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고 또한 만나야만 한다. 영적필요와 기타 육적필요들이 서로 긴밀하게 중첩 및 결합되어 있기에 선교 대상지와 지역개발 대상지는 서로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결합되어 있으며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우리는 선교사업과 지역개발 사업 역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원리적 그리고 개념적 연관성 외에, 선교 전략적 및 선교 현실적 차원에서도

양자는 연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전도, 교회 개척, 제자훈련 등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방식의 선교가 명확한 한계를 보이고, 거기에 더해 외부 선교단체와 외부인 선교사 중심의 사역이 벽에 부딪히면서 이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방안으로 ‘토착화 전략’ 혹은 ‘상황화 전략’ 등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보다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토착화와 상황화를 위해 선교지 지역사회 문제와 필요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지역사회개발 사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대가 이루어진 것이다.

3. ‘총체적 선교’ 개념의 ‘지역개발’에의 적용: 총체적 기독교 지역개발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총체적 지역개발을 이해하려면, 앞에서 살펴본 비기독교/일반적 차원에서의 개발 및 지역개발 개념에 더하여, 기독교 관점에서 그 동안 접근되었던 대표적인 개발/지역개발 개념들에 대해 보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기독교 NGO 월드비전은 ‘개발이란 특정 공동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을 되찾고 경제적, 사회적, 영적영역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하여 도움을 주는 시도이며,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을 동원하여 이런 일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정지웅, 1990). 아울러 이 정의와 연관 지어 개발의 개념을 ‘첫째, 개발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다. 둘째, 개발은 사람에 관한 것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셋째, 개발은 사람으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하는 것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세분화하여, 인간의 가능성을 총체적으로 개발하는 원리를 지역사회개발에 도입하고 있다.

로널드 사이더(Ronald Sider)는 ‘개발이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속한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보다 많은 통제권을 획득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간의 가능성을 온전히 실현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였고(Sider, 1981:19), 모펏(Moffit)은 ‘개발이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성경에 기초를 둔 모든 행위를 일컫는 것이며, 인간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 및 자신의 동료와 환경과 화목의 상태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라 표현한 바 있고, 김원곤 역시 기독교 개발NGO들의 개발사역의 본질을 인간과 하나님 간-인간과 사회 간-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회복으로 규정하고 있다(Samuel, 1992:398; 김원곤, 2011:41). 이렇듯 인간과 하나님의 화목, 인간과 인간의 화목, 인간과 사회의 화목, 인간과 환경의 화목 개념에서

우리는 총체적 선교 원리를 엿볼 수 있다.

미국 기독교 지역사회개발협회(The Christian Community Development Association)가 제시하는 지역개발 개념은 보다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총체성 또는 통합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첫째, 교회를 통해 수행된다. 둘째,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셋째, 영적 그리고 육적인 모든 자원을 활성화하는 통합적인 접근(holistic approach)을 한다. 넷째, 지역사회 중심적인 방식으로 일한다. 다섯째, 교육과 지도자 개발이 필수적이다.’ 등으로 요약된다.

정득진과 황을호는 ‘기독교적 지역개발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기반으로 자유와 평등의 공동체를 지향하며 영적, 물질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인간 삶의 전 영역에서 인간의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돕는 일련의 과정’(정득진·황을호, 2001:33)이라는 개념규정을 통해 기독교적 지역개발이 갖추어야 할 총체성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월드비전(국제)을 통해 아프리카에서 30여년 가까이 구호 및 개발사역을 담당하고 이후 폴리신학교 국제개발 분야 겸임교수로 활동했던 사무엘 부히스(Samuel Voorhies)는 자신의 사역경험과 성경적 근거를 토대로 총체적인 기독교 개발이 갖추어야 할 열 가지 기본원리를 제시한 바 있는데, 그 중 주요한 내용들을 추려보면 이와 같다. “...사람에게는 자신의 미래에 이바지하고 미래를 결정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 인간의 기본적 필요인 존엄성과 자존감을 스스로 채울 수 있도록 도우라. 아무리 가난해도 모든 지역사회와 모든 개인은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와 자신의 마을과 자신의 지역사회를 위해) 무언가 이바지 할 것이 분명히 있다. 지역에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알아내어 그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주의의식과 자존감을 갖게 하는 열쇠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라.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궁극적으로 책임을 진다.... 빈곤에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차원과 영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개발의 어떤 노력에서든 전인, 곧 마음과 몸과 영혼을 다 포함하라. 이것들을 따로 분리하지 말고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고 전인격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라....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변화됨을 믿어야 한다. 살아있고 성장하는 믿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교회 공동체가 지속적인 변혁/변화를 위한 기본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Winter 외, 2000:204-205).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볼 때, ‘총체적 선교’ 개념원리에 입각한 ‘총체적 기독교 지역개발’의 핵심원리에 대해 우리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압축할 수 있겠다 (Winter 외, 2000:178-179).

- 변혁적(transformative): 인간, 공동체, 마을, 지역사회 등이 일시적 그리고 임시적이 아닌 온전하게 변혁되는 것을 지향한다. 한 사람에게 있어 영적, 심리적, 정서적, 물질적, 신체적 등 전인격적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고 지역사회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전사회적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즉, 기독교적 변혁이란 국가 내, 지역 내, 사회 내 존재하는 개개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고후 3:18)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국가, 지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시스템, 제도, 관습 등에 침투되어 본질적이며 온전한 변혁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변화와 변혁은 궁극적으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내부에서 그들 스스로의 의지와 역량에 기초하여 자발적이고 자체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 총체적(holistic): 심리적, 정서적, 지적, 영적, 물질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법적, 제도 및 시스템의 영역, 즉 국가-지역-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친 인간의 결핍과 필요를 다룬다.
- 통합된(integrated): 바로 위의 총체적 변혁/총체적 개발을 위해 현실 해외개발사업장에서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정책 및 사업상의 방향/내용으로서, 지역개발사업의 모든 측면이 한데 결합하여 교육, 식수개발, 주거환경 개선, 급식제공, 의료서비스 제공, 주민소득 증대, 인권증진, 어드보커시, 거버넌스 향상, 악습 철폐, 악한 법/제도/시스템 개선, 세계관과 사고방식의 전환, 복음전도, 기독교 공동체 건설 등 개발사업에 있어 다양한 노력들을 연결하고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총체적 지역개발사업이 직접적으로 지향해야 할 구체적 사업목표는 지역주민들 스스로의 의지와 역량에 의한 ‘지역사회 전체의 공동체적, 총체적 복지증진’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Linthicum, 1991:25).

Ⅲ. 국내 기독교 NGO의 지역개발사업 고찰

- 한국월드비전과 한국기아대책을 중심으로 -

1. 한국월드비전의 지역개발사업¹⁾

(1) 한국월드비전 지역개발사업의 발전과정

공여국(또는 지원국) 21개국 및 수원국 80개국의 총 100여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월드비전(국제)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9월 미국의 밥 피어스(Bob Pierce) 목사 에 의해 설립되었다. 한국선명회(宣明會)²⁾로 불렸던 초창기의 월드비전은 북미 후원자들의 후원금을 모아 한국의 전쟁고아와 아동들에게 의식주와 기독교 교육을 제공하였고, 이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 각 지역으로 사업과 조직이 점차 확장되었다. 한국월드비전은 현재 세계 50여개 국가에서 290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월드비전(이하 월드비전)의 개발사업의 흐름과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다.

설립연도인 1950년부터 60년대 말까지 초창기의 월드비전은 보육원, 모자원 등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후원을 받는 아동들에게 교육, 건강관리, 직업훈련 등을 지원함으로써 아동 개개인들 직접 돕는 방식으로 활동하였다. 그런데 20년의 사업수행을 통해 아동 개개인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빈곤의 근본원인을 해소할 수 없으며, 아동의 삶을 보다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이 사는 가정(family)과 해당 지역사회(community)의 변화와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제2시기인 1970년대부터 가정복지사업을 시작하여 아동과 가족들에게 직업교육과 농업교육을 제공하고, 협동조합을 통해 수혜가정의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도왔다.

이후 제3시기인 8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가정을 돕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를 돕는 방식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기존의 가정복지사업을 지역사회 전체로

1) 한국월드비전 해외지역개발사업의 역사와 사례에 대해서는 필자가 기관측에 의뢰해 일부 입수한 기관내부자료를 중심으로 월드비전 60주년 기념자료, 홈페이지 등을 광범하게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기관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정확한 출전표기가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한국월드비전 (2010), 『한국월드비전 60년사』(서울: 한국월드비전); www.worldvision.or.kr

2) 1998년 9월 선명회 국제총회에서 ‘월드비전’으로 개칭됨.

확장 및 포괄하되, 지역에 따라 약간의 구분을 두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개발사업(CDP,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과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개발사업(FDP, Family Development Program)으로 발전적 전환을 이루었다. 이에 따라 도시와 농촌지역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조직(communitiy organization)을 결성하도록 돕고,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우물설치, 개량 화장실 설치, 소득향상을 위한 순환자금 운영, 학교신축, 예방접종 실시, 급식제공 등의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역개발사업(CDP) 방식으로든 빈곤의 근본원인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경험하면서, 제4시기로 접어든 90년대 이후 ‘(대단위) 지역개발사업(ADP, Area Development Program)’이라는 새로운 모델로의 양적 및 질적 발전을 모색하게 된다. 1991년 베트남의 탕빈 사업장에서 처음 시범 실시된 ADP는 무엇보다도 지역개발에 있어, 지역주민들이 참관자 혹은 단순 수혜자에서 주체자로 전환되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과 마을의 지속적이고 총체적 변화를 추구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변화/변혁을 가져오는 개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개발, 아동들의 지속적 복지에 초점을 맞춘 개발’을 추구하는 월드비전의 ADP는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생존과 성장, 보건위생, 기초교육 및 영적/정서적 케어, 아동이 속한 가정의 생계 유지, 지역사회의 확대와 착취로부터의 보호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사업을 시행하였다. ADP는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개선 및 발전이 이루어져 2000년대 후반에 이르면 126개 해외사업장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아동과 아동이 속한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국제개발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월드비전은 제5시기라 할 수 있는 2000년대 들어, ADP 모델이 추구하는 목표 중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개발(TD, Tranformational Development)’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관련 정책과 주요지표를 정립하게 된다. 또한 아동 중심의 지역개발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2009년부터 ‘아동의 삶의 질 목표(Child Well-being Outcome)’와 그에 따른 지표를 개발하는 한편, 긴급구호-지역개발-옹호(Advocacy)사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통합적 사업모델(IPM, Integrated Programmng Model)을 개발하여 점차 실험 및 적용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이상과 같은 월드비전 지역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해외 사업장 중 대표적인 한 곳을 선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한국월드비전 지역개발사업 사례

[베트남의 호아방(Hoa Vang) 지역개발사업장]

• 지역 및 사업장 소개

베트남 중부의 대표적 저개발지역인 다낭시에 위치하고 있다. 호아방 지역 총 14개 마을 중 8개 마을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75,000명의 주민들이 지원을 받고 있다.

• 지역개발사업 내용

- 교육사업

사업대상 8개 마을 내 3,000여명의 결연아동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이들을 가르치는 330명의 교사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산간지역에 살고 있는 소수부족들의 문맹률 감소를 위한 교육지원을 실시하였다.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룹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보건·위생사업

지역 내 여성과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조리법 강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양실조 상태가 심각한 아동과 저체중 산모들을 특별관리하고 있다. 또한 지역아동들에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의료장비를 지원하며 전염성 질병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에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물과 화장실 시설을 건축해주어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는 등 다양한 보건위생사업을 벌이고 있다.

- 소득증대사업

농업기술과 양봉기술을 교육하고, 양계장을 신축·보수해주었으며 지역기술센터를 건립하여 농부들을 지원하고 비상용 종자와 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적합한 농법을 시행하도록 도와 땅콩만 기르던 밭에서 호박, 가지, 버섯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수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수확한 생산물을 시장까지 보다 빨리 그리고 용이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도로와 교량을 건설해주었고 수확물의 시장 상품화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지원하고 있다.

- 옹호 및 역량강화 사업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월드비전의 원조를 받아 지역사회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주인의식 고취와 자기 주도적 지도자 양성을 위해 다양한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과 아동의 지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관련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옹호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 아동결연사업

아동결연사업을 통하여 옷가지, 책, 학용품, 자전거 등을 아동들에게 지원하였고, 특별히 아동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였으며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아동들과 그 가정에 치료비와 의약품을 지원하였다.

2. 한국기아대책의 지역개발사업³⁾

(1) 한국기아대책 지역개발사업의 발전과정

1971년 래리 워드(Larry Ward) 박사에 의해 설립된 기아대책기구(국제)는 국제본부 외에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스웨덴 등 세계 12개 지원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기아대책은 1989년에 설립되었다. 국내 최초의 해외NGO로 등록된 한국기아대책은 현재 70여개 국가에서 구호 및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기아대책(이하 기아대책) 개발사업의 흐름과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다.

고아원 등 국내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아동들을 돌보는 사업으로 시작한 월드비전과 다소 다르게, 기아대책은 물자공급 등 해외긴급구호 활동이 사업의 첫 시작이었다. 1990년 12월 방글라데시, 케냐 등 7개국에서 진행한 긴급구호활동을 시작으로 이듬해 15개국으로 구호사업이 급속히 확대되었고, 1992년 10월에는 우간다에 제1호 기아봉사단을 파송하였다. 1994년에는 국내 민간단체 중 처음으로 북한지원을 시작하게 되는데,

3) 한국기아대책 해외지역개발사업의 역사와 사례에 대해서는 필자가 기관측에 의뢰해 일부 입수한 기관내부자료를 중심으로 기아대책 20주년 기념백서, 홈페이지 등을 광범하게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기관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정확한 출전표기가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2009), 『기아대책 20주년 기념백서』(서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www.kfhi.or.kr

수해와 가뭄 등으로 북한의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자 기아대책은 밀가루, 분유, 씨감자 등의 식량과 의복 및 의약품과 의료장비 등을 긴급구호 형태로 북한에 전달하였다. 긴급구호사업의 확대를 중심으로 한 이 시기를 기아대책 지역개발사업의 제1시기로 볼 수 있다.

1995년을 기점으로 기아대책의 해외사업에 있어 괄목할만한 질적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제2시기를 맞게 된다. 1995년 3월 기아대책은 기존의 구호활동 이외에 필리핀 등의 사업장에서 ‘해외어린이개발사업(CDP, Child Development Program)’을 시작하였는데, 해외어린이개발사업은 국내 후원자와 해외 아동을 1:1로 결연하여 결연아동이 학교교육, 의료검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때 후원자와 어린이는 서신왕래와 방문 등을 통해 상호간 긴밀하게 교류하게 된다.

2000년부터 시작된 제3시기에는 어린이개발사업이 지역개발사업과 연동되면서 확장적 발전을 이루게 된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어린이개발사업을 중심축에 놓고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CDP 중심의 지역개발사업이 추구하는 목표와 원리,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전략과 방침은 제3시기에 확고히 구축되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섬기는 사람과 공동체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다른 사람과 다른 공동체를 섬기는 데까지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기아대책의 사역비전인 ‘공동체의 비전(VOC, Vision of Community)’으로 나타난다(정정섭, 2009:83-86).

기아대책의 지역개발사업은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영적, 교육적 성장을 돕는 CDP를 중심축으로 하여 아동이 속한 가정과 지역사회 공동체의 총체적 변화와 자립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그들 개인과 지역사회 공동체가 그들보다 더 어려운 타인과 타공동체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CDP를 중심으로 청소년 및 마을 지도자 훈련사업, 보건의료사업, 수자원개발사업, 농업개발사업, 가축지원을 비롯한 소득증대사업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기아대책의 지역개발사업은 2002년 모잠비크 나라송가 지역개발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고, 같은 해 키르키스스탄, 온두라스 사업장의 경험을 거쳐 이후 전 세계 곳곳의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식량, 의복, 의약품 제공 등 단순 구호활동 중심의 종래의 북한지원사업도 이 시기에 지역개발사업으로 발전적 전환을 이루어, 북한 지역사회의 자립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으로 사업의 초점과 목표가 전환되게 되었다. 이는 2003년 시작된 수자원개발, 수액제조공장 건설 등으로 시작되었고 이후의 함경도와 양강도의 시범농장 경영 등으로

나타났다.

제3시기의 획기적이고 유의미한 변화를 기반으로 하여 200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제4시기는 CDP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개발사업이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더욱 확대되고 성장하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기아대책의 지역개발사업은 아시아 17개국, 아프리카 11개국, 남미 9개국, 유럽 1개국(루마니아) 등 총 38개국 100여개 사업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기아대책의 지역개발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해외 사업장 중 대표적인 한 곳을 선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한국기아대책 지역개발사업 사례

[태국 우본(Ubon) 지역개발사업장]

• 지역 및 사업장 소개

우본 지역은 태국 동북부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이다. 우본의 남쪽에 우리나라 군에 해당하는 땀본이 위치해 있는데 이곳 땀본 가운데 가장 극빈한 6개 마을에서 기아대책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어린이개발사업(CDP) 내용

- 교육영역

정규학교 과정을 마치기 어려운 아동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장학금과 학용품 등을 제공하여 경제적 여건으로 학업을 중단한 아동들을 학교로 이끌고 있다.

- 영적영역

불교 영향력이 강한 이 곳에서 주일학교를 운영하면서 여타 토요모임, 어린이성경 캠프 등의 활동을 통해 아동과 부모들에게 기독교를 알리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 신체적 영역

상습 침수지역인 관계로 질병이 만연한 이 곳에 건강검진, 의약품 지원, 위생교육 등을 제공하고 아동상담 및 성교육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 정서적/사회적 영역

지역 내 절반 이상이 조손가정, 편부모 가정 등 결손가정인데 이렇게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해 가정방문, 다양한 외부활동(체육대회, 소풍, 견학, CDP-DAY)을 병행하고 있다.

• CDP와 연계된 지역개발사업 내용

- 수자원 개발사업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학교에 정수시설과 급수대를 설치하여 아동과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고 있다.

- 교육/훈련사업

다니엘 훈련센터를 세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 지도자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기숙사를 갖추고 있는 훈련센터는 대학생들에게 학비와 생활비 전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비충당 등 훈련센터의 자립을 위해 고무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 농업개발사업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충당,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총면적 8만 5천 평을 확보하여 농업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고무, 유카나무, 황마를 재배하고 있다.

- 기타사업

* 우본 세광선교센터 건립

선교센터를 건립하여 센터 내 어린이집, 학생 기숙사, 주일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 마을회관 개보수

방치되어 있던 마을회관을 수리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맹교육반, 한국 무용반, 위십반을 개설함으로써 주민들 간 친밀도 및 아동과 주민들 간 친밀도를 높이는 배움의 장, 만남의 장,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 구호물품지원

우기철 상습침수가 발생하는 우본 지역주민들에게 라면, 쌀, 통조림, 구급약 등의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Ⅳ. 국내 기독교 NGO 지역개발사업의 평가와 발전방향의 제시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약 40여 개에 달하는 국내 기독교 NGO들은 - 특히 대형 NGO들의 경우- 조직구성, 재정확보와 사업시행, 사업규모, 조직과 사업운영 메커니즘 등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차이가 존재하지만 사업목표와 비전, 전략과 원리, 사업내용과 방법 등 거시적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기에,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월드비전과 한국기아대책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중심으로 국내 기독교 NGO의 개발사업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보완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제언해보도록 하겠다.

1. 한국월드비전과 한국기아대책의 지역개발사업 평가

본고의 제Ⅱ장에서 우리는 총체적 선교 개념에 근거한 기독교적 지역개발의 의미, 그리고 온전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기독교적 지역개발사업이 지향하고 갖추어야 할 요소에 대해서 고찰한 바 있다. 기독교적 지역개발이란 ‘개인과 지역사회의 영적, 심리/정서적, 물질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각 영역에서의 결핍을 해소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지역사회 주도로, 그리고 (광의적 개념의) 교회/기독교 공동체에 의해 수행되는 일련의 과정과 행위’라고 개념정리할 수 있으며, 이는 기독교적 지역개발의 ‘변혁성’, ‘총체성’, ‘통합성’으로 집약할 수 있다. 기독교적 지역개발이 내포하고 지향해야 할 이 세 가지 핵심적 특성에 근거할 때 한국월드비전과 한국기아대책의 지역개발사업은 어떤 평가가 가능할까.

이를 위해 위에서 언급한 두 단체의 지역개발사업의 변천과정을 한 번 더 짚어보고 정리해보고자 한다. 개발사업의 개념, 개발사업의 초점과 성격, 개발사업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역할이라는 세 가지 방면에서 두 단체의 지역개발사업이 겪어온 변화와 발전에 대해 아래의 표와 같이 최종정리해볼 수 있다.

한국월드비전			시기		한국기아대책		
개념의 변천	개발사업의 초점과 성격	지역사회의 역할			개념의 변천	개발사업의 초점과 성격	지역사회의 역할
아동구호 사업	아동 개인의 복지에 초점 / 사람을 위한 개발사업	배경으로만 존재	1950 년대				
위와 동일	위와 동일	위와 동일	1960 년대				
가정복지 사업	아동과 가족의 복지에 초점 / 사람을 위한 개발사업	명목적인 참여자	1970 년대				
지역개발 사업(CDP)	지역사회에 초점 / 사람들과 함께 하는 개발사업	참여도의 증진,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부분적인 참여	1980 년대				
대단위 지역개발 사업 (ADP)	사람들과 함께 하는 개발사업⇒ 개발사업을 위한 주민들의 역량강화 추구	적극적인 참여자의 역할	90 년대	90 ~ 94	긴급구호 사업	개인의 생존과 존속에 초점 / 사람을 위한 개발사업	배경으로만 존재
				95 이후	어린이개발 사업(CDP)	아동과 가족의 복지에 초점 / 사람을 위한 개발사업	부분적 참여
변화를 가져오는 개발(TD) / 구호·지역 개발·옹호 사업 통합모델 (IPM)	개발사업을 위한 주민들의 역량강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개발사업 추구	적극적인 참여자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있어서의 주체자로서의 역할 추구	20 00 년대	00 ~ 04	CDP와 연계된 지역개발 사업	아동과 가정 및 지역사회에 초점 / 사람들과 함께 하는 개발사업 + 개발사업을 위한 주민들의 역량강화	적극적인 참여자의 역할
				20 05 이후	지역개발 사업의 발전과 성숙	개발사업을 위한 주민들의 역량강화 +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개발사업 추구	적극적인 참여자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에서 있어서의 주체자로서의 역할 추구

(1) 통합성 평가

먼저 두 단체가 수행해온 지역개발사업의 개념의 발전과정과 실제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개발사업 사례를 살펴볼 때 통합성은 - 표면적으로 볼 때- 일정 부분 달성하고 있지만, 지역개발의 총체성과 연관하여 볼 때 기본적인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단체는 모두 아동과 주민 개개인의 복지증진과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사업으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개발의 범위를 가족, 가정, 마을, 지역사회 전체로 확장시켜왔다. 그리고 사업의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 사람 개개인의 생명을 구하거나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적 필요를 채우는 긴급구호사업과 아동구호사업으로 시작하여 교육사업, 심리/정서치료 사업, 보건의료사업, 수자원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촌개발사업, 소득증대 사업, 인권 중심의 권리옹호(어드보커시) 사업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들 사업들이 하나의 프로젝트 아래 일정 정도 한데 어우러지고 서로 연결되어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성격은 지역사회의 총체적 개발이란 목표를 위해 수행되는 구체적인 하부 정책사업과 관련된 것이기에,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성에 대한 최종 평가는 사업/사업들 간의 외적인 결합과 통합만으로는 온전히 평가되기 어려우며, 지역개발의 총체성에 관한 평가에 연동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래 총체성 평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 총체성 평가

개인과 가정, 마을과 지역사회 내 존재하는 결핍과 문제들은 모든 영역에서 발견된다. 영적, 심리/정서적, 지적, 물질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법-제도 및 시스템, 거버넌스 등 각 영역들의 문제와 결핍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상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총체적 개발인데, 이에 대한 평가는 사실 회의적이라고 해야 한다. 대다수의 NGO들이 수행하고 있는 개발사업이 주로 심리/정서적, 지적, 교육적, 물질적, 경제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으며 영적, 사회적, 법적-제도적, 거버넌스적, 정치적, 문화적 영역의 개발은 대개 담보상태에 있거나 거의 시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는 바로 위에서 다룬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성이 지닌 한계와도 관련이 있다.

월드비전의 경우 “사람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정의를 구현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

음을 증거한다.”는 소명헌장(mission statement)과 달리, 사업장이 속한 지역사회의 영적 혹은 종교적 문제를 거의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법적·정치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영역에서 정의를 구현하고 변혁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업 역시 아직은 답보상태 혹은 성과가 미미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월드비전이 2000년대 후반 들어 저개발국의 각 지역사회의 빈곤과 불평등, 부정부패와 부정의, 인권침해 등을 고착 및 확산시키고 있는 악한 구조, 관습, 제도, 정책 등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권리옹호(어드보커시)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채택하게 되면서, 관련 전략과 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는 과정 중에 있기에 향후 발전적인 성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월드비전과 달리 기아대책의 경우 아동과 그 가정, 나아가 마을과 지역사회의 영적 혹은 종교적 문제를 다루는 것을 CDP 및 지역개발사업의 주요영역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기아대책은 결연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토요모임, 주일학교와 여름성경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마을 내 선교센터를 건립하여 사역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월드비전보다는 총체적 지역 개발에 조금 더 근접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법적, 문화적 영역 내 존재하는 모순과 사회악을 해소하기 위해 투쟁하는 방면에서는 기아대책 역시 특별히 눈에 띄는 노력과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변혁성 평가

바람직한 지역개발은 개인과 가정, 나아가 마을과 지역사회 내부에서 지속적인 변화 혹은 변혁이 일어나는 것을 추구하는데, 이 때 중요한 것은, 외부에 의해 일시적으로 강제되거나 주입된 외생적 변화와 변혁은 큰 의미가 없으며 그보다는 해당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내부에서 자발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꾸준한 내생적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변혁성은 주민과 지역사회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변화, 의지적 역량의 강화, 자기 주도성 및 주체성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월드비전과 기아대책 모두 개발사업의 초점과 성격, 지역사회의 역할 방면에서 변혁성을 점차적으로 지향해왔음을 알 수 있다. 월드비전의 경우 1990년대 이후 CDP에서 ADP로 전환되면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역량강화사업을 모색해왔고,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이전의 소극적 혹은 부분적 참여

자에서 적극적 참여자로 변모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2000년대 들어서는 개발의 변혁성 측면에서 이전보다 한 단계 발전된, 소위 ‘변화를 가져오는 개발(TD)’ 모델을 수립하고 관련 전략과 수행지표를 개발하여 시범적용 중에 있다. 기아대책 역시 2000년대 들어 CDP와 지역개발사업의 연동성과 통합성이 공고히 자리 잡은 이후,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역량과 참여적 역할이 조금씩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왔다. 그리고 2005년 이후로는, 월드비전이 비슷한 시기에 지역사회의 자발적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개발사업의 주인이자 주체자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사업의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지속적이고 온전한 변혁을 위해서는 결국 주민 개개인의 사고방식, 가치관, 세계관, 정신 및 의지적 측면의 전환과 강화가 기본전제가 되는데, 우리는 이런 점에 기초하여 가나안농군학교의 지역개발사업의 주요 지향점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나안농군학교의 핵심토대는 경제운동도, 근대화 운동도, 농촌계몽운동도 아닌, 자기수행의 공동체성에 있다(김장생, 2009:144). 즉 해방 이후의 가나안농군학교는 인간의 의식개혁 운동에 일차적으로 매진하면서, 주민들 각자가 자신과 자기 가정과 자신의 마을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기초적 역량과 역동성을 배양하고 습득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정신교육-생활교육-경제적 자립-지역사회개발을 순차적/논리적 및 전체적으로 한데 결합하는 방식으로 지역개발 운동을 추진하였다(김장생, 2009:148-149). 그리고 해방 이후 국내에서의 가나안농군학교 사역과 운동의 이러한 지향과 목표는 해외개발사업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한국월드비전과 한국기아대책을 위시한 국내의 기독교 NGO들은, 지역사회의 자립-개발-변혁의 전제이자 토대가 되는 주민 개개인의 참여도 증진, 주인의식 고취, 그리고 역량강화를 위해 가나안농군학교의 의식교육/정신교육 프로그램의 경험과 성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배우고 흡수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된다.

저개발국의 주민과 지역사회 공동체 스스로가 외부의 도움 없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파악하고 해결하여 온전한 변화와 변혁을 이루는 것은 사실 오랜 시간과 시행착오를 요하는 일이다. 평균적으로 볼 때, 긴급구호사업을 포함하여 길게 잡아도 20여년, 짧게 잡으면 10여 년 조금 넘는 역사를 지닌 국내 NGO들의 지역개발사업으로는 해당 지역의 온전한 변혁성을 기대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라고 여겨지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여러 저개발 지역과 빈곤지역에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혁과 발전이 생겨

나도록 돕는 노력이 현재 조금씩 진행 중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국내 기독교 NGO 지역개발사업의 발전방향 제시

위에서 언급한대로 월드비전과 기아대책을 포함한 국내 NGO들은 많은 강점/장점과 동시에 몇 가지 약점 혹은 한계점을 안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요구되는 몇 가지 발전방향에 대해 개략적이나마 제시해보려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발전방안 제언은 후속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첫째, 영적필요를 다루는 사업에 좀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개인과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내 존재하는 구조적 문제와 모순은 기실 상당부분 영적 문제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다루지 않고 표면적 혹은 외적현상에 불과한 심리·정서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방면에만 치중하는 것은 단기적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 결핍해소와 본질적 의미의 기독교적 개발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NGO 사역은 구조적으로 복음전도와 교회개척 및 -사역 대상 주민들의- 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의 전환 등의 영적사역을 전면에 내세우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비기독교 NGO가 아닌 성경적 기초에 근간한 총체적/통합적 개발사역을 수행하는 기독교 NGO라면 영적인 부분을 개발사역과 효과적으로 결합시키는 노력과 작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필리핀 선교사업단(MMP: Mission Ministries Philippines, Inc.)의 도시빈민 개발사역의 사례(장남혁, 2013:130-133)에서 적절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MMP는 도시빈민들의 삶과 생존에 직결되는 건강, 생계, 교육, 주택 4가지의 기초적 필요에 주목하여 활동을 전개한다. 그리고 그와 함께 교회개척(Church Planting)을 중요시하는데, 이 둘은 개발사역에서 한데 어우러지게 된다. 즉 MMP는 빈민지역에 교회개척을 지원하는데, 그 교회는 단순히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50명의 성인 주민들, 약국, 식료품점, 유치원 등으로 구성된 공동체 조직이다. 영적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인 동시에 신체적-물질적 공통의 필요를 자조적 공동체 차원에서 채워주는 기초 지역사회조직(Community Organization)인 것이다. MMP는 이러한 방식으로 마닐라 지역의 슬럼가에 매년 3개의 교회-지역사회조직을 만들면서 교회개척 사역과 빈민개발 사역을 통합적으로 훌륭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

둘째, 영적필요를 다루기 위한 사업 이외에, 마을과 지역사회의 정치행정, 관습, 제도, 문화 내 존재하는 사회악을 척결하는 사업에 보다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지금까지의 개발사업이 대개 교육, 보건위생, 환경개선, 소득증대 등 주로 지적,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측면의 결핍을 다룬 것이었다면, 이후로는 권리옹호 사업의 확대와 강화 등을 통해 저개발국 빈곤 사회의 정치·사회·문화적 영역의 모순과 악습 해소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자기 주도성을 포함한 변혁성의 달성을 위하여 현지인 리더십의 개발 및 차세대 지도자 교육훈련에 대한 보다 많은 강조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교육사업은 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문맹퇴치 교육과 청년과 주민들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교육 및 기술교육이 중심을 차지해왔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지역사회의 자립과 지속가능한 변혁을 기대하기 힘들다.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마을의 부모와 어른들을 중심으로 하는 리더십 개발 훈련과정의 보다 확산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장기적 안목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자 양성과정의 개발과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V. 맺음말

기독교 선교사역에 있어 교회와 선교단체의 동력이 떨어지고 복음의 돌파구가 쉽게 마련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NGO를 활용한 선교사역은 매우 적실하고 효과적이라 하겠다. 해외 선교지에서 기독교 NGO에 의해 수행되는 구호 및 지역개발사업은 피선교국의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 인상을 심어주기에 유리하다.

특히 사회주의 권역이나 이슬람 권역의 국가들과 같이 종교의 자유가 제한된 곳에서는 선교사들의 합법적 체류보장, 선교거점 구축, 선교재산 보호, 복음의 접촉점 마련, 재정절약, 과다경쟁 방지 등 여러 방면에서 유익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기에 NGO 형태로 이루어지는 선교사역은 제3세계 선교지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선교를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김원곤, 2013:74).

이렇게 여러 가지 강점과 장점들로 인해 해외선교에 있어 중대한 역할과 기능을 요구받고 있는 기독교 NGO들은 자신들의 해외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내부적으로 좀 더 깊

은 성경적·선교학적 성찰과 전략적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총체적 선교로 대표되는, 성경적으로 올바른 선교사역의 원리와 성격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원리적 성격을 지역개발사업에 담아내려면 어떤 전략과 정책이 있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그 전략과 정책은 현지 사업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실천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광범하고 깊이 있는 숙고와 모색을 통해, 제3세계 선교지에서 복음의 크나큰 전진과 확장이 있기를 기대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김덕규 (2015).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베트남 선교- 빈롱성 한아봉사회 활동을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37. 107-139.
- 김성민 (2016). “기독교 NGO를 통한 새로운 선교전략의 모색.” 『ACTS 신학저널』. 28. 231-283.
- 김원곤 (2011). “한국의 NGO정책과 기독교NGO.” 『학문과 기독교세계관』. 4. 31-45.
- _____ (2013). “한국의 기독교NGO에 대한 선교학적 성찰.” 『선교신학』. 32. 73-105.
- 김장생 (2009). “빈곤 문제와 김용기.” 『시대와 민중신학』. 11. 139-175.
- 마민호 (2005). “총체적 선교의 성경적, 철학적 기초.” 한동대 아시아지역연구소 제 4회 지역연구세미나(세미나 주제: <전략적 선교로서의 총체적 선교의 의미와 실제>).
- 일본개발교육협회 (2012). 코피온 지구시민교육센터 역. 『개발교육실천핸드북』. 서울: 코피온.
- 정득진·황을호 (2001). “기독교 관점에 근거한 지역사회개발의 철학적 분석 고찰.” 『지역사회개발연구』. 26(1). 29-43.
- 정정섭 (2009). 『복떡방 이야기』. 서울: 두란노.
- 정지웅 (1990). 『북지농촌 건설과 지역사회개발: 한국선명회 평창복지회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장남혁 (2013). “로잔운동에 나타난 지역사회개발 선교에 대한 고찰- 로잔문서를 중심으로.” 『복음과 선교』. 24. 115-148.
- 장성진 (2009). “남인도의 지역사회개발 선교전략에 대한 신학적 고찰.” 『신학과 선교』. 35. 1-19.
- 조귀삼 (2013). “구심력의 다문화 유입에 따른 NGO의 선교역할 연구.” 『복음과 선교』. 24. 179-219.
- 최무열 (2010). “교회사회사업의 통전적 선교를 통한 공산권 선교 방안에 관한 소고.” 『교회사회사업』. 14. 103-134.
- KOICA ODA 교육원 (2012). 『국제개발협력 첫걸음』.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_____ (2016). 『국제개발협력(심화편)』. 성남: 시공미디어.
- 한국기아대책기구 (2009). 『기아대책 20주년 기념백서』. 서울: 한국기아대책기구.
- 한국월드비전 (2010). 『한국월드비전 60년사』. 서울: 한국월드비전.
- 황선엽 (2007). “교회선교의 새로운 통로- NGO 운동.” 『새가정』. 54(590). 14-17.
- Linthicum, R. C. (1991). *Empowering the Poor*. CA: Marc.
- Samuel, Vinai., 황을호 역(1992). 『인간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회』. 서울: 생명의 말

씀사.

Sider, R. J.(Ed.) (1981). *Evangelicals and Development: Toward a Theology of Social Change*. Pennsylvania: The Westminster Press.

Winter, Ralph. 외 (2000). 정옥배 외 공역. 『퍼스펙티브즈 2』. 서울: 예수전도단.

Abstract

Evaluation of Korean Christian NGO's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and Suggestion for Improv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Holistic Mission’ – Focused on World Vision Korea and Korea Food for Hungry –

Sung-Min Kim (Dongseo University,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Traditional mission reached its own limits, Christian NGO ministry emerged as an alternative. Korea began implementing the regional development ministry/project abroad since the 1990s. Korea Food for the Hungry and World Vision Korea are notable examples. Missional NGO project conducted by Christian NGO should have its biblical basis/principle, and ‘whole gospel’-based ‘holistic mission’ should be the principle. Therefore Christian NGO’s overseas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also should be a ‘holistic regional development’. And ‘transformative’, ‘holistic’, ‘integrated’ these three factors are the core characteristic of ‘holistic regional development’. Based on these idea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of World Vision Korea and Korea Food for Hungry, and to advance some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like supplementation of spiritual ministry, elimination of cultural abuse and development of the local leaders etc. I will suggest the specific and detailed strategies/measures to pursue the holistic regional development ministry of Korean Christian NGOs in the follow-up study.

Key Words: holistic mission, holistic regional development, Christian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Christian NGO, World Vision(Korea), Food for the Hungry(Korea)

